

kiri Weekly

2015.9.28 제352호

이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선정 기준의 금융권역별 차이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2015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산업 M&A 현황과 특징
운송네트워크회사와 보험산업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선정 기준의 금융권역별 차이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이하 G-SIFs) 선정 및 감독에 관하여 각 금융권역별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음.
 -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식별하여 규제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짐.
- 국제기구 논의 과정을 통해 각 금융권역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실패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 글로벌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회사 부실화나 실패의 확률 보다는 그 부실화나 실패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춤.
 - FSB의 G-SIFI 식별체계는 크게 지표기반 측정방법(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과 이를 보완하는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으로 이루어짐.
-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은 범주의 가중치와 지표의 선정에서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 차이와 영업 포트폴리오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반영함.
 - 범주의 가중치 측면에서 보험권역은 전통적 보험영업보다 변액보험이나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비전통·비보험 영업의 비중(45%)과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상호연계성(40%)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함.
 - 지표를 보면 국제적 활동이나 규모에 비해 비전통·비보험/복잡성, 상호연계성과 대체가능성 지표 선택에서 금융권역 간 차이가 나타남.
- 금융권역별 G-SIFs 선정방안 검토를 통해 각 금융권역의 선정방안이 일관된 방법론을 지키면서도 사업모형과 리스크의 차이를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기관(D-SIFIs)의 선정과정에서도 각 금융회사 사업모형의 특성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1.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이하 G-SIFIs) 선정 및 감독에 관하여 각 금융권역별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시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와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¹⁾
 - FSB는 은행권역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²⁾), 보험권역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³⁾), 금융투자권역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금융안정성 관련 논의를 이끌어 왔음.

- 대형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라는데 인식이 모아지면서 이들을 식별하여 규제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짐.
 - G-SIFI 규제는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요약되는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 대형 금융회사 파산 시 구제금융 지원이 불가피하고 이를 예상한 대형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됨.

- FSB는 G-SIFIs에 대한 선정 및 규제 방안을 각 금융권역 국제기구와 함께 2011년부터 권역 별로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왔으며, 최근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에서도 선정방안 수정 초안이 발표되어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
 - 은행권역의 경우, FSB는 BCBS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이하 G-SIBs)의 선정 및 규제방안을 2011년 발표하였고 2013년에는 수정된 내용이 나왔음.⁵⁾
 - 보험권역의 경우, FSB는 IAIS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이하 G-SIIs)

1) FSB(2010), "Reducing the Moral Hazard posed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2)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4)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y Commissioners.

5) BCBS(2011),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 BCBS(2013),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updated assessment methodology and the higher loss absorbency requirement".

의 선정방안과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2013년 발표하였음.⁶⁾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의 경우, FSB는 2015년 3월에 IOSCO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비은행비보험 금융회사(이하 NBNI G-SIFIs) 선정방안의 수정 초안(Draft)을 발표하였음.⁷⁾

■ 보고는 FSB가 각 금융권역 국제기구와 함께 발표한 G-SIFIs 선정방안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의 금융권역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각 금융권역의 사업모형과 리스크의 차이가 어떻게 금융회사의 시스템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인식 방법에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함.
- 향후 논의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D-SIFIs) 선정에 필요한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 선정방안



■ 글로벌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회사 부실화나 실패의 확률보다는 그 부실화나 실패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춤.

- 어떤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확률이 낮더라도 일단 부실화되는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금융회사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화 또는 실패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규제⁸⁾와 구분됨.

■ 시스템리스크 관련 국제기구 논의 과정을 통해 각 금융권역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실패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6) IAIS(2013a),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initial assessment methodology"; IAIS(2013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olicy measures".

7) FSB and IOSCO(2015), "Assessment methodology for identifying non-bank non-insurer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Consultative Document(2nd). 이 문서의 1차 초안은 2014년 1월 발표되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3월 수정 초안이 나옴. 보고는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의 다양한 사업모형 중 NBNI G-SIFI 선정 논의에서 최종안에 근접한 여신전문회사(Finance Company)와 투자금융회사(Securities broker-dealer)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함.

8) 은행권의 바젤 III 규제, 보험권의 Solvency 또는 RBC 규제, 금융투자권역의 순자본규제(Net Capital Rule)는 각 금융권역의 대표적 미시건전성 규제라 할 수 있음.

- 은행은 자금중개와 지급결제 등 핵심 사업모형의 특성 상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며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 과도한 레버리지와 불충분한 자본으로 유동성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여 대형은행이 부실화되면 상호연계된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⁹⁾
 - 전통적인 보험영업은 그 자체로 시스템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으나 신용부도스왑(CDS) 같은 금융보증 등의 비전통·비보험 영업(NTNI Activities)을 영위하는 보험그룹은 다른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¹⁰⁾
 -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글로벌 보험그룹 AIG의 부실화는 금융투자 자회사인 AIGFP의 파생상품 거래와 이를 통한 부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화시켰음.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다양한 사업모형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지며 그 중 특정 리스산업과 같은 시장의 집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위기 시 자산급매각으로 인한 시장혼란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¹¹⁾
 - 예를 들어, 항공리스크와 같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시장구조를 가진 금융업은 부실 시 빠른 대체가 어려운 시장구조로 시스템리스크에 취약함.
 - 또한 투자금융회사는 금융시장의 주요 채권채무자로 기능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시 증거금납부 요구(Margin call)나 자산급매각 등의 경로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은 금융권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FSB는 각 금융권역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G-SIFIs 선정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였음.
- G-SIFIs 선정의 기초단계인 G-SIFIs 후보 금융회사 샘플은 각 금융권역 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를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감독자 판단을 거쳐 후보군을 선발하고, FSB는 이들 중 G-SIFI 식별체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G-SIFIs를 선정함.
- 은행권역의 경우, 바젤 III 레버리지 비율 노출 측정¹²⁾에 기초한 75대 글로벌 은행과 전년도 G-SIBs 지정 은행¹³⁾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9) BCBS(2010), "The Basel Committee'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report to the G20".

10) IAIS(2013a).

11) FSB and IOSCO(2015).

12) 바젤 III 레버리지 비율 노출 측정은 a) 재무상태표상 노출 b) 파생상품 노출 c)증권금융거래(SFT) 노출 d) 부외(OBS) 항목의 합계로 구성됨. (BCBS, Basel III leverage ratio framework and disclosure requirement, 2014)

13) 감독자들이 충분한 이유를 들어 제외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전년도 지정 G-SIBs는 후보군에 포함됨.

- 보험권역은 총자산이 6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총수입보험료 중 해외 비중이 5%를 넘는 글로벌 보험회사와 총수입보험료 중 해외비중이 5% 이하지만 총자산이 2,000억 달러를 넘는 대형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됨.
 - 금융보증보험회사 등이 추가적으로 감독자 판단을 거쳐 포함될 수 있음.
-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¹⁴⁾의 여신전문회사(Finance Company)와 투자금융회사(Securities Broker-Dealer)는 총자산 1,000억 달러를 넘는 경우 NBNI G-SIFIs 후보회사로 포함됨.

■ FSB의 G-SIFI 식별체계는 크게 지표기반 측정방법(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과 이를 보완하는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으로 이루어짐.

- 지표기반 측정방법¹⁵⁾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국제성,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보험은 비전통·비보험)의 5개의 범주(Category)로 분류하고 각 범주를 지표(Indicator)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점수화함.
 - 예를 들어 지표기반 측정방법에 의해 기준 점수(Cut-off score)를 넘은 은행은 감독자 판단을 거쳐 G-SIBs로 지정됨.
 - 5개 범주 중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비전통·비보험) 등은 특히 해당 금융권역의 사업모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음.
-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간과할 수 있는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엄격한 적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의성을 배제함.
 - 예를 들어, BCBS는 감독자 판단을 위한 4가지 원칙¹⁶⁾을 정하여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
 - 보험권역은 감독자 판단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량적 판단기준으로 IFS(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평가¹⁷⁾를 사용하여 보험회사 영업행위가 시스템적 중요성에 미치는 영

14) 다양한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 중 여신전문회사(Finance company)와 투자금융회사(Securities broker-dealer)에 대해서만 기준이 정해진 상태임.

15) 지표기반 측정방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실패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

16) 1. 감독자 판단으로 인한 조정은 정량적 점수를 뒤집어야 하는 드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2. 감독판단 과정에서 은행의 리스크(즉, 부실 또는 부도 확률)가 아니라 부실 또는 부도 발생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춤. 3. 국가 내 정책/청산 체계의 질에 대한 견해는 G-SIBs 식별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문서화되고 증명가능한 정성 및 정량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

17) 보험회사 영업활동을 전통적 보험, 준전통보험, 비전통적 보험, 비보험금융, 산업활동으로 나누어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함.

- 향을 감독자 판단 과정에서 고려함.
-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가용한 정량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감독자 판단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FSB 및 IOSCO는 제안하고 있음.¹⁸⁾
 -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기관(D-SIFIs) 지정 과정에서 각 나라 사정에 정통한 감독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2014년 11월 발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그룹(Bucket)* 및 추가자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5(3.5%)	(해당은행 없음)
4(2.5%)	HSBC, JP Morgan Chase
3(2.0%)	Barclays, BNP Paribas, Citigroup, Deutsche Bank
2(1.5%)	Bank of America, Credit Suisse, Goldman Sachs, Mitsubishi, UFJ FG, Morgan Stanley, Royal Bank of Scotland
1(1.0%)	Agricultural Bank of China, Bank of China, Bank of New York Mellon, BBVA, Groupe BPCE, Group Credit Agricol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NG Bank, Muzuho FG, Nordea, Santander, Societe Generale, Standard Chartered, State Street, Sumitomo Mitsui FG, UBS, Unitcredit Group, Wells Fargo

주: G-SIBs는 속한 그룹(Bucket)에 따라 차등화된 추가적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를 받음.
 자료: FSB(2014), 2014 update of list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G-SIBs).

■ FSB는 개별 금융권역 선정방안에 따라 매년 11월 G-SIFIs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현재 30개 은행과 9개 보험회사가 지정되어 있음.

- 은행권역에서는 HSBC와 JP Morgan Chase를 비롯하여 Barclays, BNP Parisbas, Citigroup, Deutsche Bank 등 대형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성에서 상위 그룹¹⁹⁾에 속함(〈표 1〉 참조).
- 보험권역에서는 미국 AIG, Prudential Financial, Metlife, 영국 Aviva, Prudential, 프랑스 Axa, 이탈리아 Generali, 독일 Allianz, 중국 Ping An 등 9개 보험회사가 지정됨.
-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현재 선정방안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 중에 있으며 NBNI G-SIFIs의 선정 및 규제 방안을 확정된 후 지정할 예정임.

18) FSB and IOSCO(2015), pp. 6-7.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주로 영업행위 관점에서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이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떨어짐.

19)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지정은 그 중요도에 따라 5개 그룹(Bucket)으로 나누어 그룹에 따라 1%~3.5%의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3. 금융권역별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 비교



-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방법은 범주의 가중치와 지표의 선정에서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 모형에 따른 리스크 차이와 영업 포트폴리오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반영함.
 - 범주의 가중치는 은행은 5개 범주에 20%씩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보험은 복잡성을 대체하는 비전통·비보험에 45%, 상호연계성에 40%를 배분하고 나머지 3개 범주에 5%씩 배분함.²⁰⁾
 - 지표의 경우, 모든 금융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된 지표들도 있지만 각 금융권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들도 포함되어 금융권역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짐.

- 범주의 가중치 측면에서 보험권역은 전통적 보험영업보다 변액보험이나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비전통·비보험 영업의 비중(45%)과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상호연계성(40%)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함.
 - 보험업의 경우,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 보험의 리스크는 다른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독립적이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효과적인 리스크 풀링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함.
 - 따라서 전통적 보험营业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의 규모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변액보험이나 파생금융상품 등 비전통·비보험 영업의 규모(45%)가 시스템적 중요성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 보험회사의 규모(5%) 가중치가 시스템적 중요성의 판단에 있어 은행의 규모 가중치(2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이기도 함.

20)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은 아직 범주 및 지표별 가중치가 정해지지 않음.

〈표 2〉 G-SIBs(은행) 평가방법 중 각 범주 및 지표 가중치

범주	범주 가중치	지표	지표 가중치
국제적 활동	20%	국가 간 채권	10%
		국가 간 부채	10%
규모	20%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에 정의된 총노출	20%
상호연계성	20%	금융기관 간 자산	6.67%
		금융기관 간 부채	6.67%
		유통 유가증권	6.67%
복잡성	20%	장외파생 명목 금액	6.67%
		level 3 자산*	6.67%
		거래 및 매매 가능 유가증권	6.67%
대체가능성 /금융기관 하부구조	20%	수탁자산	6.67%
		지급결제 활동	6.67%
		부채 및 주식 인수거래	6.67%

주: *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
자료: BCBS(2013).

〈표 3〉 G-SIBs(보험) 평가방법 중 각 범주 및 지표 가중치

범주	범주 가중치	지표	지표 가중치
글로벌 활동	5%	해외부문 수입	2.5%
		활동국가의 수	2.5%
규모	5%	총자산	2.5%
		총수입	2.5%
상호연계성	40%	금융기관 간 자산	5.7%
		금융기관 간 부채	5.7%
		재보험	5.7%
		시장유통 파생상품	5.7%
		거대노출	5.7%
		회전율	5.7%
		level 3 자산*	5.7%
비전통 및 비보험 활동 (복잡성)	45%	비보험부채 및 비보험수입	6.4%
		파생상품거래	6.4%
		단기자금조달	6.4%
		금융보증	6.4%
		변액보험 최저보증	6.4%
		그룹내부 약정	6.4%
		보험부채 유동성	6.4%
대체가능성	5%	특정 보험영업부문 보험료	5%

주: *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
자료: IAIS(2013a).

- 또한 보험회사는 시스템리스크의 근원이기 보다는 다른 부문에서 촉발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채권 및 채무관계, 재보험, 파생금융 등 금융시장을 통한 상호연계성(40%)도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

■ **지표를 보면 국제적 활동이나 규모에 비해 비전통·비보험/복잡성, 상호연계성과 대체가능성 지표 선택에서 금융권역 간 차이가 나타나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표 4 참조).**

- (비전통·비보험/복잡성) 시스템적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은 담보하는 리스크의 종류가 중요하며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회사조직이나 보유자산의 복잡성이 보다 중요함.
 - 보험의 경우, 비전통보험인 변액보험과 금융보증, 은행 사업모형과 유사한 단기금융, CDS 등 파생금융상품 등이 지표를 구성하며, 이들 비전통·비보험의 리스크는 전통적 보험과 달리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위기 시 보유자산이나 회사구조가 복잡하여 기업가치의 평가가 어렵고 신속한 청산이 어려우면 시스템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지표 선택에 이러한 점이 반영됨.
- (상호연계성) 보험권역 상호연계성 지표의 주요 차이점은 재보험, 파생거래, 자산회전을 등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한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을 포함하는 점임.
 - 금융기관 간 자산 및 부채와 같이 채권·채무 관계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자산급매매에 따라 유사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전이되는 공통점도 반영함.
- (대체가능성) 보험과 비은행비보험 금융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실패 시에 신속하게 대체할 회사가 부족한 경우의 시스템적 영향을 반영함.
 - 따라서 보험의 특정 보험영업부문 보험료나 비은행비보험 금융권역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정성적 판단 등을 대체가능성 지표로 선정함.

〈표 4〉 금융권역별 지표 비교

범주 (Category)	지표(Indicator)				
	은행 (G-SIBs)	보험(G-SIIs)	금융투자(NBNI G-SIFs)		
			여신전문회사	투자금융회사	
국제적(글로벌) 활동	국가 간 채권	해외부문 수입	국가 간 채권	국가 간 채권 및 부채	
			국가 간 부채		
	국가 간 부채	활동 국가 수	해외 자산 및 매출	활동 국가 수	
			활동 국가 수		
규모	바젤Ⅲ 총노출	총자산	총 글로벌 연결자산	총 글로벌 연결자산	
			총수입	총 글로벌 연결부외노출	총 글로벌 연결부외노출
		시장유통 고객자산			
상호연계성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자산	
		금융기관 간 부채	금융기관 간 부채	금융기관 간 부채	
	금융기관 간 부채	재보험	유형별 채무	레버리지 비율	
		시장유통 파생상품		단기채무 비율	
	시장유통 유가증권	거대노출	레버리지 비율	장외파생 자산 및 부채	
		자산회전율		청산기관 요구마진	
		level 3 자산*			
복잡성 (비전통 및 비보험 활동)	장외파생 명목금액	비보험부채 및 비보험수입	장외파생 명목금액	연결 자회사 수 (구조적 복잡성)	
		파생상품거래			
		단기자금조달			
	거래 및 매도가능 유가증권	level 3 자산*	금융보증	청산의 난이도	level 3 자산* (운영상 복잡성)
		변액보험 최저보증	비유동자산규모 (level 3 자산* 등)		
부채 및 주식 인수거래	보험부채 유동성				
	수탁자산	특정 보험영업부문 보험료 (대재해, 항공, 해상, 금융보증 등)	시장점유율 및 대체성을 고려한 정성적 판단	시장이 중개인에 의존하는 정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시장점유율 (i)국내 거래소 점유율	
(ii) (가용한 경우) 국제 유가증권시장 점유율					

주: *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
 자료: BCBS(2013), IAIS(2013a) 및 FSB and IOSCO(2015).

4. 국내 금융규제에 주는 시사점



- 금융권역별 G-SIFIs 선정방안 검토를 통해 각 금융권역의 선정방안이 일관된 방법론을 지키면서도 사업모형과 리스크의 차이를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범주의 가중치에서 은행과 보험의 차이는 규모, 상호연계성, 복잡성(비전통·비보험) 등이 각 금융권역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에 미치는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
 - 지표의 경우, 공통되는 항목도 다수 있으나 특히 상호연계성, 복잡성 및 대체가능성 등 금융권역의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범주에서 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각 금융권역 별 규제의 특성에 따른 통계자료의 가용성과 같은 제약과 지표방식에 따른 정량적 방법론이 간과하는 금융권역의 특수성은 감독자 판단으로 반영함.

- 보험권역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성은 주로 비전통비보험 사업모형을 통해 나타나므로 시스템리스크 관련 규제에 이러한 보험업 사업모형의 특수성이 반영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²¹⁾가 필요한 전통적 보험영업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은행처럼 20%의 규모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상을 왜곡시켜 규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임.
 - 이 경우, 전통적 보험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대형 보험회사는 시스템적 중요성이 낮음에도 G-SIFIs로 선정되는 반면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비전통·비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기관(D-SIFIs)의 선정과정에도 각 금융회사 사업모형의 특성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D-SIFIs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국가 감독당국의 재량이 큰 비중을 가지므로 해당 금융권역 감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kiri](#)

21)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전통적 보험영업은 효과적인 리스크 풀링을 위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함.